

고용 통계 발표에서 조사 대상 확인하기

똑똑 · 에디터 가온 · 발행 2026.09.30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한 달의 변화로 장기 추세나 정책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는 분자와 분모가 다릅니다.

핵심

-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는 분자와 분모가 다릅니다.
- 한 달의 변화로 장기 추세나 정책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 ·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취업자”의 변화가 곧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경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률의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라면 그 안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므로 같은 분자를 쓰더라도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개념 구분 · 같이 보이는 말을 나누기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는 분자와 분모가 다릅니다. 학생과 은퇴자를 포함하는 범위, 계절 조정 여부도 제목 뒤에 숨습니다. 가상 지역에서 취업자가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고 대상 인구가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면 고용률은 50%에서 44%로 떨어집니다. “취업자가 늘었다”와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동시에 참입니다. 제목 하나만 읽으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

가상의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 고용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수치를 모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월별 숫자는 방학, 계절 산업, 조사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는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는지 표시합니다. 숫자의 변화가 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그 외 조건을 다른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교표 ·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

확인 항목	본문에서 확인한 것	읽을 때 주의할 점
핵심 범위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는 분자와 분모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	가상의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 고용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의 변화로 장기 추세나 정책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후속 확인	보도표의 대상 연령·기준 기간·분모·계절 조정·표본오차를 옆에 적고 제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만 작은 하위 집단은 표본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세부 수치의 불확실성도 확인합니다.

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

통계표에서는 전체 고용률 다음에 연령대와 지역별 분포를 봅니다. 전체가 같아도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하위 집단은 표본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세부 수치의 불확실성도 확인합니다. 한 달의 변화로 장기 추세나 정책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방식의 개정과 전년 동월 비교도 확인합니다.

깊이 읽기 ·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

취업자 수가 늘 때 인구 규모도 변할 수 있습니다. 100/200과 110/250을 비교하면 수는 10명 늘지만 비율은 50%에서 44%로 6%포인트 낮아집니다. “6% 감소”라고 쓰면 비율 자체의 상대 변화와 혼동되므로 %포인트를 붙입니다. 조사표의 “취업” 정의는 일상어의 “안정적인 정규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과 조사 기준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의 질을 알고 싶다면 근로 시간·임금·계약 형태의 별도 자료를 봐야 합니다.

직접 확인 ·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

보도표의 대상 연령·기준 기간·분모·계절 조정·표본오차를 옆에 적고 제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처음은 50%, 나중은 44%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대상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 고용률은 낮아졌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취업자 수가 100명에서 110명, 대상 인구가 200명에서 250명이면 고용률은?

확인 설명

처음은 50%, 나중은 44%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대상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 고용률은 낮아졌습니다.

고용 통계의 조사 대상과 분모는 무엇일까요?

고용 통계의 숫자는 조사 대상과 정의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취업자”의 변화가 곧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경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는 분자와 분모가 다릅니다. 학생과 은퇴자를 포함하는 범위, 계절 조정 여부도 제목 뒤에 숨습니다.

취업자 수가 100명에서 110명, 대상 인구가 200명에서 250명이면 고용률은?

처음은 50%, 나중은 44%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대상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 고용률은 낮아졌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면 고용률도 반드시 오르나요?

한 달의 변화로 장기 추세나 정책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방식의 개정과 전년 동월 비교도 확인합니다. 보도표의 대상 연령·기준 기간·분모·계절 조정·표본오차를 옆에 적고 제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원문과 출처

• 통계청 ·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고용동향 —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5106&list_no=422967&seq=2: 서울 지역 고용동향 자료에서 15세 이상 조사 대상과 고용률의 정의를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전국·현행 고용률 수치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미국 인구조사국 · 분포 읽기 학습 자료 —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sis/activities/math/census-in-counties.html>: 중앙값·평균과 분포를 함께 비교하는 방법;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employment-statistic-survey-population>